

2001. 4. 25(水)

제69회임시회제3차본회의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總 務 社 會 委 員 會

#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4. 17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1. 4. 17  
다. 상 정 일 자 : 2001. 4. 23 (제69회임시회총무사회위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 가. 제안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으로 폐지 의결된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임.

### 나. 주요내용

- 삭제
- 조례 제20조(가축사육의 제한) 제④항의 가축사육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사육신청서 제출과 제⑤항의 제④항에 따른 가축사육 신고필증 교부 등의 내용을 삭제
  - 조례 제21조(가축사육자의 의무)의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갖추 의무조항 삭제.
  - 제5장 보칙 중 제22조(분뇨관련 영업자의 의무)의 분뇨관련 영업자의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 ○ 법규적검토

- 조례 제20조 제④항 및 제⑤항의 삭제 조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바 없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 제21조의 가축사육자의 의무는 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축산폐수 처리 의무) 등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 적정관리가 가능하며, 조례에는 위임된 바 없으므로 삭제는 타당
- 제22조의 경우 또한 동법 제46조(보고·검사)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가 부여된 반면 조례로의 위임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해도 법규적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적법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바 있음.

#### ○ 행정적 검토

- 동 개정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상 규제근거가 있는 가운데 조례로써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를 의결한 것으로써 규제 완화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 조례상으로는 규제내용이 삭제되었다 하나, 법령상 삭제된 것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할 것임.

## 4. 질의답변요지

### 가) 질의요지

- 1) 본 조례를 충청북도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시가 몇번째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무규정을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삭제하는 것이 아닌가? (박연길위원)

나) 답변요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 1) 본 조례에 대한 자치단체별 개정사항은 파악을 안했으며, 조례의 의무규정은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더라도 법령에 저촉을 받으므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심사보고 불임서류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